함평군, 도로교통공단과 양해각서(MOU) 체결

교통안전교육원 조성에 다시 한번 손 맞잡아

체험활동 가능한 양질 교통안전 체험센터 구축

함평군과 도로교통공단이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다시 한번 손을 맞잡고 교통안전교육원 조성에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다.

함평군은 지난 18일 함평군청 소회의실에서 '교통안전교육원 조성' 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개호 국회의원, 이상익 함평군수, 윤앵랑 함평군의회 의장,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주민 이사장 등 관계자 16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양해각서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원 건립을 목표로 공동 노력하고 ▲교통안전교육원 건립 부지 확보와 함께 기타 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교육원이 계획대로 완공되면 이는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체험활동이 가능한 양질의 교통안전 체험센터의 구축으로 이어져, 군 생태공원과 동반 활성화 등 지속 가능한 상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함평군과 도로교통공단이 더욱 협력해 교육원이 이른 시일 내에 개원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목포자연사박물관, 겨울방학 맞이 상설 체험프로그램 운영

목포자연사박물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 및 가족 관람객을 위한 '겨울방학 상설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겨울방학 체험교실은 '신나는 클레이(점토) 놀이'를 주제로, 국제멸종위기보호종인 붉은바다거북과 수달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관심을 통해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20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매주 토요일(13:30, 14:30, 15:30) 총 3차례에 걸쳐 목포자연사박물관 디스커버리존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선착순 현장 접수로 진행되며, 체험료는 3천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자연사박물관 누리집(http://museum.mokpo.go.kr)을 확인하거나, 목포자연사박물관(061-270-4101)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겨울방학 동안 박물관 소장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이니 만큼 박물관을 찾는 어린이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기회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무안군,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 신청 접수

오늘부터 2월 28일까지…업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무안군은 관내 음식점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위생적이고 쾌적한 외식 환경 구축을 위해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교체를 희망하는 관내 음식점 영업자로, 신청 기간은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사업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팀(☎450-5018)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군은 신청서류 접수 후 현장조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음식점은 ▲1세트(식탁 1개, 의자 4개)당 구입 비용의 50%,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으며 ▲업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업소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산 군수는 "우리 지역 자영업자들의 시설개선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손님들은 편의성이 증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안=기동취재본부

영암군, 초보 귀농세대에 월 30만원 3년간 지원한다

영암군은 '2024년도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지원사업은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농촌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한 것. 개인 지원 내용은 귀농인정착금 지급, 소규모 주택 수리, 귀향인 주택 마더하우스 수리 등이다.

특히, 귀농인정착금은 초기 영농생활 지원을 위한 것으로 농업인경영체 등록을 마친 초보 귀농세대에 월 30만원씩 3년간 지급한다. 단, 세대원 중 2명 이상이 영암군에 전입하는 조건이다.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컨설팅과 멘토 역할을 담당할 귀농귀촌인 품목별 학습 동아리에는 3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영암군 전입 4년 이내의 귀농귀촌인 7인 이상 모임인 신규동아리에 한해서다.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사업에 참여할 희망자는, 2월8일까지 영암군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영암=조대호 기자

영광군, (사)영광에서모싯잎떡을만드는사람들과 영광 떡 산업 활성화 및 공동 마케팅 추진 간담회

영광군은 지난 17일 영광군농업기술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영광에서 모싯잎 떡을 만드는 사람들'(대표이사 대균년, 이하 (사)영모사)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사)영모사는 2009년 설립되어, 지리적표시 제104호 영광모싯잎송편 및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떡 가공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영광 떡 산업 활성화 및 공동 마케팅 추진을 위해 진행된 이 날 간담회에는 (사)영모사 대균년 대표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영광 떡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떡 가공 관련 가업승계 및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영광 떡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사)영모사에서는 "이번 간담회는 영광군 떡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라며 "공동 마케팅을 통해 상생 발전하고 영광 떡 산업을 주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청년들의 지역 정주를 위하여 수요 맞춤형 창업 교육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영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는 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품 가공 및 품질관리 및 떡 가공장비 지원 등 보조 사업, 치유농업 프로그램 및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광=서희권 기자

신안군, 정원해설사 양성 교육 기초과정 3기 모집

신안군은 관광객에게 관내 정원의 스토리를 담은 양질의 정원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원해설사 양성교육 기초과정 3기(토요일반) 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1004섬 정원과 수목 자원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품격 있는 정원해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으로, 신안군의 사계절 꽃피는 정원을 더욱 풍요롭게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정원해설사 교육을 통해 신안군의 역점 시책인 1섬 1정원 조성사업의 이해를 높이고, 주민과 전국 최초 정원수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가꿈마다 향기 나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원해설사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교육 접수 기간은 다음 달 2월 2일까지며,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은 읍면사무소 농산팀을 통해 방문 접수할 수 있다. 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며, 다음 달 2월 17일부터 4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신안=이덕주 기자